

← 게시물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4일



저기요
우리 함께하자매요
저기요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사람의 최저선:양심
하지만 해석하기 나름이죠?
양심을 외면하는 세상이 되면 존재할 수 있죠. x.com/kkwaaaaang/sta...

모른다 하여도 괜찮다. 끊임없이 기회를 줄 것이다. 나는 어디에도 있으니. 나는 너와
희로애락을 느낀다. 나는 너와 태어나고 죽는다. 나는 너와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나는
너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게 양심으로 존재한다. 마음 외면하거든, 나는 너 앞에 나타날
것이다. 나는 **無이고 有이다**. 무엇이든 업보를 가져올 존재이다.

💬 1 ↻ ❤️ 1 📊 232 📌 ⬆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저기 오해가 있습니다???
나름 사람이잖아요? 아니 이상하게 계속 해명하게 되네 내가 봉헌 오너님이 된 것 같
네. 아니 그 어? 아니 그 존재화 가능해요 가능하да구요

💬 1 ↻ ❤️ 📊 26 📌 ⬆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4일



그러니까 지금 존재는 하는데 사람 | 아니라 심장으로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아...아닌가?
공자옴 부처옴 양심은 어디에 존재해 내게 답을 줘

💬 1 ↻ ❤️ 📊 33 📌 ⬆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정답 ㅇ.< 사람=의 속에 존재하는 양심
금륜은 사람으로 환생 하나요? 아니면 신령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흠... 사람이 양심통 느끼는 부위 아닐까요? (있되 없는 무통의 어딘
가.....)

💬 1 ↻ ❤️ 📊 32 📌 ⬆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4일



애는 무조건 사람인데
함께가 그런 의미의 함께였던거니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정답 ㅇ.< 사람=의 속에 존재하는 양심
금른은 사람으로 환생 하나요? 아니면 신령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흠... 사람이 양심통 느끼는 부위 아닐까요? (있되 없는 무통의 어딘가.....)



1



32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4일



애는 무조건 사람인데
함께가 그런 의미의 함께였던거니
니 심장이 되어 영원히 함께였니
니 뇌가 되어 함께였니(이거아님)



1



23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ππππππππ 아아니 존재화 진짜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함께는 맞긴하죠? 와 저 그럼 궁금한거 사람이면 기억은 못하는 건가
요



1



26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4일



그그근데 존재화라는 게 일단 사물이든 동식물이든 해든 달이든 존재를 하는건데 뭘로
존재하는 게 너무 궁금해서
물질계에 한정된 제 두뇌로는 양심으로 존재하는거면 이거 이치화 아닝교????상태가
되다
아 사람으로 돌아가서 기억못하고 그냥 삽니다
모든 중생들이 그렇듯 윤회의 고리로 돌아가요



1



50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엔딩 스크립트는 작성을 해두고 이게 존재화인지 이치화인지 고민하니까 지인이 이치
화라기엔 너무 자아가 강한거 아니냐. 해서 그러네?! 하고... (그렇게 됐다.)그러면 양심
으로 있지만 자아는 있어서 기억은 하긴 할거라. 수많은 사람 중 하나는 금른이라 생각
하니 '함께 한다'는 맞죠...?!



1



27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이거 너무 인외적 발상인가요.)



진짜 사람이 되었군요. 와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요?? 저 너무 궁금해.
+오너님이 원하시면 사람(신령)으로 존재하는 순간으로 썰풀이하는 건 가능합니다.

1 ↻ ♥ 30 📌 ⬆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4일



뭔가...뭔가 그러면...흠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무상은 또다시 "신령"이란 존재로 있길 택한 것 같아요
완전 이치화라기엔 자아가 너무강하고, 또 아니라기엔 일정한 존재가 없고...대신 본체 하나가 무수히 나뉘어져 수호령처럼 모든 사람에게 붙어있는?

1 ↻ ♥ 127 📌 ⬆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4일



그래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계속 찢리는거죠 무상이라는 존재가 야! 너 그럼 어케! 하고 콕콕 찌르니까...? (물질게 인간이라 죄송합니다 그냥 떠오른거 아무거나 얘기해봄)

아마 치세면 골목대장으로 살면서 언제나 애들 사이를 이끌고, 마을이장으로서 살다가 죽고
난세면 영웅이 됩니다

1 ↻ ♥ 37 📌 ⬆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오~신령이 맞긴 하겠네요.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명백하니까. 대신 신령=사람이니까..! 앓 양심찢린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ㅋㅋㅋ) 이렇게 보니까 결국 무상은 기억하는 걸 혼자 감내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기억이 없으면 그건 지금의 '나'가 될 수 없는 거니까.

1 ↻ ♥ 21 📌 ⬆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누군가 한 명은 금상/첨화를 기억해야지 함께인 걸 알지 응응.

금륜은..다시 사람이 되어도 누군가를 이끄는 존재가 되는 군요.. 다시 영웅이 된다고...
🥺

~ ~ ~ ~ ~ ~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4일



저 갑자기 머리 뜯고 싶어지는데요
혼자 감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는데...그랬는데...
하지만 짱구를 잘 굴려보면 무수히 많이 찢개진 무상이니까...너이자 나이니까...어찌
보면 여럿이 들고 있는게 아닐까...중얼중얼
안되겠다 야 금륜 너 잠깐 기억있 이프좀 가봐
뭐라도 해 캐자야



26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4일



일단 천성적+천령들과 함께한 경험으로 인해 상당히 대문자 E에 리더형 인간이 되어
서...기본적으로 이끄는 쪽에 어울리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5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아니 하지만 들어보셔요. 윤희 알려준 거 누구야. 금륜이지. 나의 일부가 타인에게
들어있다는 것도 알려준 거 누구야. 금륜이잖아. 사상이 생기는 계기가 된 기억이 없으
면 그건 중심점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오너는... 자아=무수한 경험이자 기억
이 만들어낸 것. 이라 여겨서...



24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괴롭지는 않지 않을까..요? 무상인걸. ㅋㅋㅋㅋㅋㅋ아 웃겨 π 저는 기억 있 이프썰도
좋아요 ㅎㅎㅎ 그럼 어캐 되는거죠?
아 근데 확실히.. 금륜은 외면하지 못하고 들이박는 성품이긴 해서 대문자E이긴 한 것
같아요. 그니까 오행중에서 금. 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생각했어요.



23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4일



이게 바로 업보다
스스로의 머리채를 잡아
하...아무래도 존재화했지만 동시에 이치와도 비슷한 상태가 되었기에 뭐라 말을 더 못
하겠네요...애는 완전 사람이 되어버려서...천령들과 함께 하며 사람이 되어버려서 다
시 사람의 굴레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탓에...평범한 사람처럼 살다가 무상이라는



22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4일



존재가 자신에게 붙어있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는 기억이 돌아올지도...어 잠깐 무언가
생각났는데 이게 제가 무상 오리지널 설정 맘대로 간섭하는 일이 될까봐 흑터레스트



존재가 자신에게 붙어있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는 기억이 돌아올지도...어 잠깐 무언가 생각났는데 이게 제가 무상 오리지널 설정 맘대로 간섭하는 일이 될까봐 흥터레스팅 되다
그치만 지도자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되죠. 그런의미에서 무상은 구제라는 길 위 최고의 동지였다고 생각해요.



22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이제 저도 업보에 머리채 잡히면 될까요..(암전히 머리 숙여..) 오...돌아온다고? 오너는 존재가 붙어있던 걸 알게될 정도의 사건이 있는 것도 재밌게다 생각하고 있어요. 음? 뭔데요 말해봐요 궁금하다. if~ 로 풀면 되지 않나?! 세상에 화나게 하는 방법이 두가지 있다던데 혹시 아시나요?



28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ㅋㅋㅋㅋ하.. 진짜로 오너가 뒤에서 구원이라니 너무 좋다..구원이랑 자비는 결국 하나잖아 이생각하고 있었어요 ㅠ 지도자는..하나보다 둘이 좋지..반대편을 봐줄 수 있으니까...



24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4일



사실 존재화라는게 자기가 존재하고 싶으면 존재할 수 있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무상이 평소에는 양심으로서 존재하는데 무상에게만 너무 기억이 많이 쏠리거나(무상이 버겁지 않다고 해도 뭐든 한쪽으로 쏠리면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오타쿠적으로 생각해서) 할때 쯤에는 금륜이...무상을 알아보고



46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4일



기억 되찾고 그 기간동안은 금륜이 기억을 맡고 있고? 무상은 기억없이 존재하다가 다시 또 무상이 기억을 찾으려 자리를 바꾸고...그러니까 둘이서 주기적으로 자리 체인지를 하는 건 어떤가 생각했어요 한 명이 어느 한 곳을 보면 다른 하나가 그 외의 곳을 봐서 구원과 자비는 함께하는거니까...



40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저도 그렇게 존재화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오? 잠시만요 그러면 금륜은 어떻게 되는거죠? 사람이 기억을 감당할 수 있나요...? 신령의 기억인데...??? 뭐지 저지금 억지사지 배운 사람 됐어요. 흐름 일단은 금륜에게 피해가 덜 간다고 생각하고 마저 풀자면..



74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기억없이 존재한다=양심으로 돌아가다인가요 아니면 '사람'으로 존재한다인가요. 이제부터 제가 설정하면 되나...



28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4일



그러면 이제 다시 신령으로 존재하지 않을까요...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으니...그렇기 때문에 금륜이 무상의 기억을 맡는 순간이 온다면 자기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넘어선 깨달음을 얻거나



38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4일



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구제를 원하는 순간일듯한. 그 순간 이전 세계의 신령과 비슷해지면서 똑같이 양심...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무언가로 존재하는

사실 그 부분은 생각은 안하긴 했는데요(먼산)

후자? 쪽을 생각하긴 했어요 물론 무상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싶다면 그쪽도 있을 것이고



31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호오... 저는 일단 좋아요! 그러면..흠 기억을 맡긴다면.. 권속이 같이 감당 하려다가 소멸했던 적이 있어서.. 절반을 넘기되 반은 무상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신령의 기억(신력)을 반으로 쪼개 나눠줬다는 느낌..?



16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기억 나눠줬으니까 형태없이 존재하는 것보다 형태를 확고히 하는 게 자아 유지에 좋아서 신령의 모습으로 존재한다거나? (다 넘기면 소멸하는 거 아냐?+오너가 금륜이랑 놀려면 그래도 기억은 들고 있어야한다는 생각.)

헉헉 똑같은 양심은 아니어도 다른 걸로 존재한다면 설정 짜주시면 안되나요!?



25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4일



구원과 자비가 비슷하니까 양심과 비슷한.. 흠. 양심 兩心 다른 의미로는 두가지 마음이라는 해석도 되긴해서 말은 되긴 해요< 근데 이거 금륜 개손해 세계관인데 사람된 존재를 다시 신령으로 끌어올린다고... (미안한데 재밌다.)



25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5일



오오 조타! 그러면...그 얘기 있잖아요 양심은 뽀족한 삼각형인데 계속 돌면 무더진다
그거...그걸 생각하면 양심인 무상이 언제나 사람들 한켠에서 영향을 주되 어느순간부
터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 쪽이 익숙해져서 영향이 줄어들거나 할 수도 있을 거 같거든
요?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22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5일



무상도 기억 엄청 들고 있을테니 아 이건 좀~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을 것 같고...그러면
이제 양심 옆에 하나가 추가되는거죠
심판이라는 이름의 무언가가
커뮤에서 금륜이 징벌하고 무상이 심판했듯이, 평소 금륜은 강 기억없 사람으로 평범
하게 살아가다가...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26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5일



사람들을 돕고 싶어지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령이 되고, 기억을 무상에게 나눠받
고 양심의 다른 면모를 행하는거죠
양심이란 사람을 뉘우치게하는 동시에
그렇기에 스스로 업보를 받아들이고 순순히 벌을 받게 하니까
다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뉘우치게 하는게 더 본질적인 기능이고,



41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5일



벌을 받을 때까지 되면 금륜이 함께하는
뭐 스스로 기억을 받을 정도면 애초에 자기 스스로 신령급 무언가가 되겠다고 마음 가
졌을 거 같아서 상관하지 않을 거 같아요



30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5일



아~~ 그런 이야기도 있죠!!! 확실히..양심이 찢린다는 것도.. 사람마다 감각이 다르고,
계속 찢린다해도 점점 무더질 수 있는게 '양심'이죠. 언제나 이상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현실을 살아야 하니까요!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5일



아~~ 그런 이야기도 있죠!!! 확실히..양심이 찢린다는 것도.. 사람마다 감각이 다르고, 계속 찢린다해도 점점 무뎌질 수 있는게 '양심'이죠. 언제나 이상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현실을 살아야 하니까요!



22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5일



호오.. 양심으로서 [도리를 지키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사람 각자에게 권리로 주었지만 양심 무시하면 심판으로 변화한다? 설정한 거에 단어를 확정하는 거면 맞네요! 아앗..앗..... 냄비님 관계 조율 할 때부터 느꼈지만 진짜 세심한 부분들이 너무 천재같아요...커뮤천재다..



25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5일



금륵이 신령금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정도였다면 오너도 괜찮아!!!! 아 그러면 생각 해봤는데요 금륵이 이전을 기억하게 된다면 제대로 '재화'한 거니까. 진짜 반가워할 것 같네요. 모든 사람의 일부에도 금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대화를 나누고 마주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30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5일



금륵이 자신이 기억하는 금륵이 맞으면 신력써서 침화를 다시 내어줄래요.....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5일



금륵이 자신이 기억하는 금륵이 맞으면 신력써서 첨화를 다시 내어줄래요.....



30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5일



하 좋다...개인적으로 생각한건데 무상이 그만치 많은 기억을 가지게 되고 양심으로 존 재할 정도면, 양심이라는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존재라도 존재감이 강해져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금륵이 신령급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정도라면...세상을 바꿔야한다,



27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5일



나 혼자만 잘먹고 잘 살기에는 "양심"이 찢리고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양심(무상)의 존재감이 강해짐+금륵이 양심을 바람으로 인해 재회하고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찾게 될 때 다시 재회하게 되는...



44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5일



헤헤 적폐 쌀을 받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요

아 근데 와중에 첨화 다시 내어주는거 너무 행복해...그래 금상이 있으면 첨화가 있어야지!!! 무상이 어떤 기준으로 이 금륵이 자기가 기억하는 그 금륵이 맞다고 판단할지도 궁금해요. 여러번 윤회하다보면 달라지고 변할수도 있어서...



32



넴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5일



역시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려나??



33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6일



(너무 길어져서..)

양심으로 있을 때면 평소에는 사람이 생각하는대로, 양심이 찢리는 범위도 각자에 맞게 두는데, 양심이 유독 작게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도리 벗어나지 않게 콕콕 거려주는 느낌이고 다른때는 각자가 느끼는게 자연스럽게 두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금륜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양심이 찢리는 범주가 크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선인에 가까우니까 무슨 행동들을 하는지 보기 위해 금륜을 보다보니 따라서 양심의 존재감도 커졌을 것 같네요.(무상의 자아가 주시하는 거니까...cctv전체를 보다가 하나의 화면을 크게 보는 느낌.)그러니 알아차리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호도 인간때 모란의 시선을 느낀적도 있고..

흐음.. 역시 이런건 오타쿠적 어쩌구를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 갑자 동안 한 구역에 두 태신령이 강림해서 쌓아온 인식이 기원의 바다로 넘어가 남은 일부를 느꼈다 한다가나, 구원과 자비는 결국 하나라서 알아봤다 할 수 있고. 혼에 역인 업을 보았다고 해서. 일단 저건 [금륜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풀자면..

일단은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무상이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기억을 하지 않아도 결국 변화하지 않는 본질이 있잖아요. [모두와 함께 웃으며 잘 살고 싶다. 그러니 내가 나서야겠다.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가 무상이 보기엔 그게 금륜의 본질 같아요. 영웅심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라 할 수 있고, 불완전한 것을 채우고 싶은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아주 강한 사람이요. 이런 속성이 여전하다면 그것은 금륜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의 흐름과 경험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이 있는 한 그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의 금륜으로 무상이 여길 것 같아요.

대충 오타쿠의 신께서 뭐든지 해주시겠죠...와중에 무상이 모두
와 "함께" 잘살고 싶은 걸 금륵의 본질로 보는게 너무너무네요
사실 테세우스의 배 같은 일화는 너무 의미없는 이야기야
사람은 당연히 과거와 달라지며 살아오는법이고 달라지기 위해
계속 태어나고 윤회하는법인데 이전과 전혀 달라볼 수 없을 정
도로 변화했다 한들 그게 어떻게 내가 아닐 수 있을까...사람은
배가 아니라 생물이라 변화가 당연한건데...결국 금륵이 커뮤 내
에서 그간의 다섯 생을 자신이라 받아들이 이유 역시 그 모든 생
에서도 자신은 나도 그들과 다 같이 행복해지길 바랐기 때문이
기도 하니까요. 거기에 더해 새로운 세계로 갔음에도 서로가 서
로를 알아볼 수 있고 수많은 cctv중에서도 금륵이라는 cctv를
유의깊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과거 세계에서의 행보도 아무의
미없는 일들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좋고...과거
의 일들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더라도 결국 금륵을 유독 유의깊
게 보게 된 이유는 자신과 생각이 같고 뜻이 같아서니까. 마찬가지로
금륵이 윤회 속에서도 어느 순간 계속해서 무상을 알아채
는 이유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뜻이 같고...또 한낱 인
간이 된 금륵은 모르더라도 무상과 함께해온 많은 업보가 업혀
있어서가 아닐까요. 나와 함께하는 자는 모두 즐거웠으면 좋겠
고 그 사이에 내가 있는걸 바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고, 그 범
위 역시 넓고 광범위하지만 그 사이에서 무상과 계속 업히는 건
그 여러 존재들 중에서도 무상과 같이 길을 나아가는 게 즐겁기
때문이겠지... 오타쿠 급발진해서 또 말이 줄줄 길어졌는데 금륵
이 인간의 수준을 넘어 신령급으로 구원을 하고 싶어서 종종 기
억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데는 그런 이유도 함께해서가 아닐
까 싶어요

아아아아~~테세우스의 배 하니까 결국 연속성이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엄청 장황하게 썼던 글이 그걸로 압축이 됐잖아..?!?!? 겉모습이 달라진다고 그게 다른 사람이 될까요. 무두무미는 형태의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가 '나'라고 지칭하는 '자아'는 같죠, 이전에는 암적수온이었던 존재이자 현재는 무두무미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종종.. '기억이 없으면 그건 같은 사람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도 해보는데.. 기억이 없으면 그건 성장하며 만들어진 '자아의 연속성'을 잃어버린 것이니 다른 사람, 새롭게 태어난 자아.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주변 사람이 기억하는 '나'가 있는 한 그 사람은 연속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억이란 것은 언젠가 돌아올 수 있고, 이전에 함께해온 경험이나 흔적들이 남아있는 한, '기억잃은 후의 존재'는 '기억잃기 전의 존재'를 이어주는 건 [기억을 해주는 타인]이라 생각이 드네요! 타인이 기억을 붙잡아주는 건 그 인연이 소중한니까 그런 것이겠죠. 내 친구가 당장 오늘 기억을 잃었다고 그 친구가 내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내 친구가 내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서 나타나도 함께 경험해온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 친구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결국 무상은 금륜의 혼이 윤회를 하며 새롭게 태어나 새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를 금륜이라 생각한다는 것은 고정되었겠네요. 길을 나아가는 게 무상도 즐겁고 동행자가 있는 그 기간을 즐거워했던 점도 같겠네요 아 너무 감동인데 오너님 괜찮으시면 if가 아니라 공설로 해도 되나요? 이따금 신령이 되어서 기억을 함께하는 존재가 된다고..(안 된다면 편하게 거절하셔두 됩니다!)

사실 전 옛날에 읽던 장르에서 전생현생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 깊생(이라고 하고 내맘대로 정의내리기)을 한 적이 있는데...전생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다면 전생으로 인한 벌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어느 범죄자가 도망치다가 아무도 그 사람의 정체를 모르고 그 자신도 사고를 당해 기억상 실증에 걸려 새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 자는 범죄자인가 아닌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만약 같은 사람으로 칠 수 있고 그렇기에 벌을 받아야하는거라면 환생과 전생이 이와 다를 건 또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그 사이를 가르는 건 "나"를 기억하는 다른 존재의 유무인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건 말마따나 그 인연이 좋은 의미로든 나쁜의미로든 중요해서일거고. 결국 애네들이 밟아온 행보와 흔적이 지금의 결과를 낸 것 같아서...아 뽕이 차오른다.

공설 전 당연히 좋습니다!!! 저야말로 거의 반쯤 야 이거 오리지널이구만...하고 있었기 때문에! 길고 긴 생 구원과 이상을 위한 윤회라고 해도 함께하는 존재가 있으면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겠지...사실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가져다대도 해탈하지 못한 중생들은 "같이 있는 게 좋아"라는 감정으로 결론이 나버린다고요. 비록 그게 해탈이나 구원같은 이상향과는 반대되는 요소라고 해도...! 한날 오타쿠인 나는...! (아저씨 집에 가세요)

아~~~ 대박. 하긴 범죄자가 기억을 잃으면 그 죄가 없던 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무상의 천명중에서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그게 잘못이 아니라 할 수 없다.'를 적은 것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네요. 의도(기억이 없다)하지 않았다 해도 인과는 생겼잖아..

까악 너무 좋아요!!!!~ 무상이 되어서 언젠가 더는 기억하지 못하게 되거나 인연의 끝이 온다는 것을 알아서 모든 것에 미련 가지지는 않지만 그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아니니까요. 함께하는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보내는 것이니까uu)~ 하..오너는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좋아!! (한날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 와 창세에서도 금륜이랑 노는 썰 풀 수 있는 게 합법이죠? 신난다!!!!

오늘 낮에 푼 설정인데..난세로 사람들이 양심을 죽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네메시스같은 존재로 권선징악을 대표하는 신령이 될거라 풀었는데 금륜이 함께하는 시기에는 종종 이 점에 대해 논의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애초에 자기 의도대로만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고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해결될 때까지는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그렇게 생각하면 쌤님 말씀대로 "나"를 기억하는 존재유무가 결국 모든 점에 영향을 끼치니 업보는 이어지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미련없는 것과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고!!! 뭔가 무상은 자칫 모두를 사랑한다=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잘못 비춰질 여지도 있어서...하지만 금륜은 그런 뜻이 아니란 걸 아니까, 자기도 모두를 사랑하는 영웅으로 불리며 여겨졌던 때가 있어서 완전 똑같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거 같아요 그리고 윤회 사이사이에서 구제는 계속 되겠지 이번엔 둘이서 같이...중얼중얼

오늘 낮에 푼 설정에 나홀이 붙어 숙성되다. 아마 그런 난세라면 금륜이 더더욱 신령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난세일수록 구해달라는 사람은 많은 법이니까요. 그렇지만 금륜은 러닝 중에 마냥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구제는 아니란 걸 깨달은만큼 무언가를 구하면 무언가를 짊어줘야 한다는 걸 알고...그래서 가야에서 그랬듯이, 그런 시기가 온다면 금륜이 권선징악에서 징악을 담당하고 무상은 권선을 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좋을 대로만 할 수는 없죠~ 기억이 없다해도 기억을 잃기 전의 자신으로서 벌어진 일에 '죄책감'을 느끼는 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인간성. 도리잖아요. 오히려 무상이 이쪽에 더 중점을 주니까 양심이 된 거라 할 수 있겠네요. 사람이 사람답게 화합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금륜이랑 이어지는 것도 그때문이겠어요. 결국 하나보단 둘이어야지 화합이 성립이 되니까요.

그쵸그쵸. 미묘하게 다르죠. 진짜 관점에 따라서는 모두를 공평하게 보는 게 중점이 아니라 적정선의 인류애 밑으로 애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할 수 있겠네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괴롭지 않게 자비를 베풀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중에서도 특정인들에게는 더 마음을 쏟을 수 있겠지만..그게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라 생각도 하고?

하 개웃기네 진짜 π 마냥 구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지 응응. 금륜도 생각의 변화가 러닝으로 달라진 게 보여져서 저는 너무 좋네요 ^-^!! 호호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에게 권선징악 신령으로 알려질 때 하나였는데 둘로 나뉘어지기? 그것마저 변화같고. 신전있으면 둘 석상 함께해두 좋겠네요. 전각은 붉고 노란 색으로 입혀서 o//o)

으앙ㅠㅠㅠ 모두를 공평하게 보지만 특정인들에게 더 마음을 쏟는다는 게 무상이 양심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사람이라서...우리모두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여야 하고...

징벌, 심판은 사실 불교보다는 한국 토속 신앙적인 부분이 강하다는 점에서...불교적으로는 부처나 보살에서 더 멀어진, 오히려 후퇴에 가까운 인물이 되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징벌하는 욕망자 캐릭터 유형 자체에는 여러 평가가 있으니 금륜은 오히려 후퇴한 인간이지만 현대적 관점이나 기타 등등으로 볼 때는 성장한 거로 볼수도 있지 않을까 해요. 불교 등의 종교는 욕망없고 섭리에 순응하는 걸 긍정적으로 여겼지만 현대학적 관점으로는 자연재해에 무력히 순응하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스스로 욕망하는 주체적 형태로 변화한 것이 오히려 발전이라며 긍정적으로 여기니까...그러나 악을 징벌하고 싶은 욕망이 커지면 선을 칭찬하고 싶은 욕망도 커지는 법!!! 그래서 둘이 함께하는 신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에게 모셔지는게 너무 룡하네요. 하 불교 노란 전각에 석상 둘이라니...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형태였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평소에는 일반적으로 권선만이 존재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르면 징악이 신령으로 등장하는 것도...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서 눈물남

 @infinite_Tkf

뭐지 여기 타래 뭐 저주 받았나? 알림이 안 온거 탐라보다 알았어요.
어떻게 본다면 다른 경지에 오를 깨달음에서 멀어졌다 할 수 있겠지만.. 꼭 깨달아야만 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 생각해요. 금륜이 생각하기에 그거 더 스스로에게 좋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 거라고요.

오후 6:26 · 2026년 4월 15일 · 119 조회수



1



1



답글 게시하기

답글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15일



무엇보다 황소고집인 금륜이잖아. 그런 애가 그렇게 여기기까지의 경험이 그를 만든거니까 더욱 확고하고 그에게 맞다 생각해요! 삶은 스스로 만드는 거니까 꼭 깨닫고 경지가 올라야만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삶이 금륜의 삶이니까 후퇴했다. 성장했다. 보다는 변화했다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하는



1



42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15일



생각이 드네용. 주관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게 성장했다고 긍정하고 싶고요. 후후...저두요... 진짜 말 나온 것은 둘다 지킨거라 할 수 있어서 더 좋네요. 고토로 돌아가 같이 구제하던 것도. 창세에서도 함께하는 것두...ㅠㅠㅠ아 너무 좋다는 말밖에 못하고 있어요. 석상은 마주보고 그림으로는



1



54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15일



서로 반대편을 보는 것도 좋다...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지만 둘은 동일하단 거 보여주는 느낌으로.. 신자들 기도할때 말 나왔던 축제 행동 해도 좋겠어요. 두개의 끈 중 하나는 신전에 묶고 하나는 신자가 들고 가구...😊



1



65



냄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17일



이것도 안보인다면

기냥 따로 제가 보냈던 것들 백업본이라도 드려야 하나ㅠㅠ(물론 누추한 썰들이라도 원하실 시)

멜루 죽어



업보 쌀주머니 @infinite_Tkf · 4월 15일



서로 반대편을 보는 것도 좋다... 한쪽으로는 치우치지 않지만 둘은 동일하단 거 보여주는 느낌으로.. 신자들 기도할때 말 나왔던 축제 행동 해도 좋겠어요. 두개의 끈 중 하나는 신전에 묶고 하나는 신자가 들고 가구... 😊



65



냄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17일



이것도 안보인다면

기냥 따로 제가 보냈던 것들 백업본이라도 드려야 하나ㅠㅠ(물론 누추한 썰들이라도 원하실 시)

멜론 죽어

ㅠㅠ 황소고집 너무 심해서 울다. 하지만 이런 황소고집한테도 자기 색들 물들인 애들이 천령 애들이고... 특히 무상은, 원래 1부에서는 금륜이 무상에게 연기설과 무아에 대해 설명해줬잖아요? 사실 애도 불법에 귀의한 건 아니고, 가뜰이나 스토리 변화로 흔들리던 와중에 자신도 고민하고 성찰하고 있는 개념을 무상에게 도움이 될까 설명해준건데... 무상이 그걸 디벨롭해서 2부에서 제대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오고, 다시 2부 무상에게 자기가 말했던 걸 돌려받으면서 조금씩 엔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천령 모두가 서로 이어진거지. 그래서 개는... 비록 퇴보했지만 동시에 나름의 해탈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흐아앙 너무 좋아요... 마주보면 서로의 눈을 바라볼 수 있고 반대편을 보면 서로 등을 맞댈 수 있으니 어느쪽이든 좋겠구나. 뭔가 마주보는 게 어울리는 애들이 있고 등을 맞대는 게 어울리는 애들이 있고 그런데 애들은 둘 다 각자의 색으로 어울려서 ... 룡해. (더 뛰어난 어휘를 사용하고 싶으나 생각나지 않는다) 하 둘을 기리는 축제날에는 동상이나 그림을 붉은 끈이나 금색 끈으로 묶는 풍습 있었으면 좋겠다... 붉은 실 금실 들고 가는 신자들 휘황찬란하겠네...



47



냄비 더 양은파리 @nodap_003 · 4월 21일

